

한국의 연령에 따른 범죄율에 대하여*

정은경**

국 | 문 | 요 | 약

일반적으로 산업화된 나라의 연령-범죄곡선의 형태는 10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나라의 연령별 범죄율은 30대나 40대에서 정점이 형성되고 있음을 본 논문은 보여 준다.

본 논문은 1967년에서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 연령별 범죄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10대 범죄율이 다른 산업국가에 비해 낮고 30대나 40대 범죄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으로 10대들의 돈에 대한 필요보다 30대나 40대 부모 세대의 경제적 압박이 더 크기 때문일 수 있음을 Greenberg(1977, 1985)에 기초하여 제안한다. 또한 1991년 이후 연령별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일치하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겪어야 했던 그들의 치열한 삶과, 가치관의 혼란, IMF로 인한 갑작스런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인한 변화와 스트레스가 연관이 있음을 사회유대이론, 아노미이론과 긴장이론 등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리나라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범죄율이 높은 시기인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본 논문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 주제어 : 연령-범죄곡선, 범죄율, 베이비붐 세대, 사회유대이론, 아노미이론, 긴장이론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I. 서론

연령에 따른 범죄를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는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시기는 10대 후반이고 그 이후는 줄어든다고 알려졌다(Sampson & Laub, 1992; Zhong, 2005). Hirschi & Gottfredson(1983)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상관없이 10대 후반에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Greenberg(1985)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고 Hirschi & Gottfredson(1985)의 재반격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범죄학에서는 10대 후반에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주장이 일반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우리 나라의 경우 박철현(2001)이 연령-범죄 곡선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는 30대에 범죄율이 가장 높음을 주장하였으나 그 후 우리나라의 연령별 범죄율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본 논문은 공식통계인 대검찰청 자료를 기준으로 1967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 연령에 따른 범죄율을 살펴보고 범죄의 정점을 형성하는 연령층이 1967년과 1971년에는 25세에서 30세 사이였고 그 후로 점차 나이가 많아져서 2005년과 2010년에는 40대 범죄율이 가장 높음을 보여 준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산업국가와 달리 10대 범죄율이 30대나 40대 범죄율보다 낮는데 이는 Hirschi & Gottfredson(1983, 1985)의 주장보다는 Greenberg(1977, 1985)의 주장으로 더욱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인다.

한편 본 논문은 1991년 이후의 우리나라 범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베이비붐 세대의 움직임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범죄가 많은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는 인구구성비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한정된 직장 교육을 받기 위해 나타나는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베이비붐 세대가 겪은 정체성의 혼란, 급속한 도시화, 핵가족화, IMF로 인한 경제적 타격 등이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사회적 유대이론(Hirschi, 2006; Sampson & Laub, 2006), 아노미이론과 긴장이론(Merton, 1938; Rosenfeld & Messner, 2006; Agnew, 2006) 등을 빌려 설명한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범죄율이 높고 인구구성비가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범죄를 줄이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범죄분석으로 삼은 자료가 공식적인 통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범죄와는 차이가 있다는 자료수집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 또한 제시되었다.

II. 선행연구

연령에 따른 범죄율에 대한 주제는 Greenberg(1977, 1985)와 Hirschi & Gottfredson(1983, 1985)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Greenberg(1977)는 산업 국가에 10대들의 범죄율이 높은 것은 10대들이 마약이나, 차유지비, 유흥비등으로 돈 쓸 곳은 많은데 산업화가 되면서 10대들의 수입원이 과거 농경시대보다 없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strain) 때문에 10대 범죄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irschi & Gottfredson(1983)은 10대 후반에 범죄율이 높은 것은 연령이라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로 인한 것으로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Hirschi & Gottfredson(1983)은 1842-44년까지의 영국과 웨일즈, 1908년도의 영국, 그리고 1979년도 미국의 범죄 통계에 대한 연령-범죄곡선의 형태를 분석하였고 그들이 연구한 거의 150년에 걸친 서로 다른 지역의 자료들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범죄양은 증가했으나 10대 후반에 범죄의 정점이 나타나고 그 이후는 감소하는 동일한 모양을 나타낸다고 하였다(p. 555). 또한 이러한 연령-범죄 곡선 모양은 아르헨티나,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같은 모양(p.569)을 보여 연령-범죄 곡선은 시간, 장소, 범죄유형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Greenberg(1985)는 범죄율의 상당부분은 사회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Hirschi & Gottfredson(1983)의 주장을 반박했고, Hirschi & Gottfredson(1985)도 같은 논문집에서 Greenberg(1985)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범죄학에서는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

는 Hirschi & Gottfredson(1983, 1985)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산업화된 나라들의 연령에 따른 범죄 분포를 보면 보통은 10대 후반에서 정점을 찍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10대 후반의 높은 범죄율의 원인에 대해 다룬다고 Sampson & Laub(2006)은 말한다.

박철현(2001)은 대검찰청 범죄통계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연령-범죄곡선을 제시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연령대는 Hirschi & Gottfredson(1983)에서 나타났던 10대 후반이 아니라 훨씬 늦은 나이인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박철현은 1985년에서 2000년까지의 범죄율을 1985년에서 1989년, 1990년에서 1994년,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는 1985년에서 1989년의 범죄통계를 사용하여 한국의 연령-범죄곡선은 30대 초반에 정점을 형성함을 보였고, 1990년에서 1994년까지는 34세 쯤 범죄가 가장 빈번하고, 1995년에서 2000년의 범죄통계를 분석했을 때는 1998년 이후는 연령-범죄곡선의 정점이 30대 중반 이후에서 나타남을 보였다. 그는 1998년 이후 연령-범죄곡선의 정점이 30대 중반이후로 밀려난 것은 1998년 한국이 IMF 원조를 받을만큼 힘들었던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제안했다.

박승진 등(1997)은 1964년부터 1996년까지의 형법범을 중심으로 한 범죄자의 연령분포를 40세 이전은 5살 단위로, 그 이후는 10살 단위로 나눠서 살펴본 후 시간이 흐를수록 30세 이하 집단의 범죄자 구성비는 줄어든 반면 31-35세 연령집단 이상에서는 범죄자 구성비가 늘어 범죄자의 연소화 현상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40세 이상의 범죄자가 전체 형법 범죄자의 30%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한국의 경우 30, 40대 연령대의 범죄구성비가 타연령대에 비해 높음을 보여줬다.

박승진 등(1979)과 박철현(2001)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10대 후반에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다는 범죄학의 일반적 주장과는 다른 것 같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통계를 1985년에서 2000년까지 연구했던 박철현(2001)보다 좀 더 폭넓게 잡아 연령별 범죄의 흐름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196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박철현이 주장했던 1985년-1989년도의 30대 초반에서 형성된 범죄의 정점이 1998년 이후 30대 후반으로 밀린 것이 단지

IMF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 후 다시 30대 초반에서 연령-범죄곡선의 정점이 형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한국의 연령-범죄곡선에서 드러난 다른 특이점은 없는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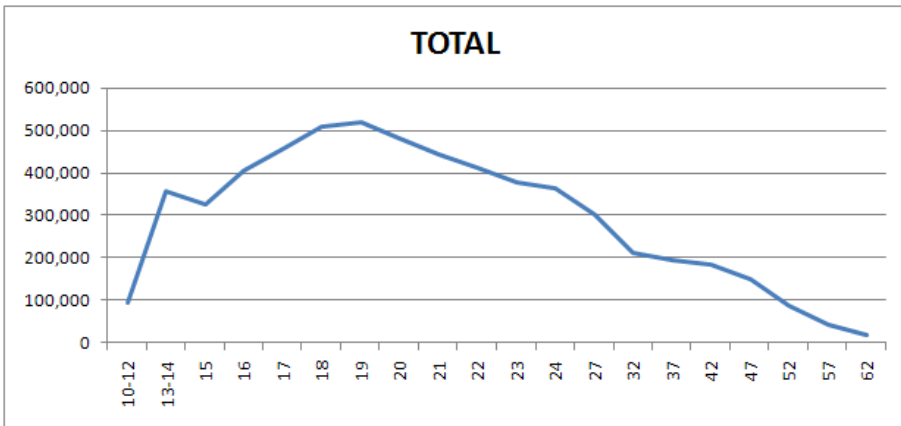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범죄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연령별 범죄율이 미국이나 다른 산업국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혹시 두 나라에서 공식적인 통계에서 사용하는 범죄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두 나라의 공식 통계정보에 사용되는 범죄 종류 중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만을 대상으로 두 나라의 연령에 따른 범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연령별 범죄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III. 미국과 우리나라의 연령별 범죄 비교

본 장에서는 2007년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연령에 따른 범죄를 살펴보고 두 나라의 연령-범죄곡선이 미국은 10대 후반에 범죄의 정점이 형성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40대에 범죄의 정점이 형성됨을 보인다. 두 나라의 연령-범죄 곡선이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이 두 나라가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종류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범죄는 빼고, 보다 보편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만을 고려한 연령-범죄곡선을 살펴본다.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았을 때도 두 나라의 범죄의 정점은 미국은 10대 후반, 우리나라는 40대에 나타남을 보여 두 나라의 연령-범죄 곡선은 다르다는 것을 보인다.

먼저 미국의 연령-범죄곡선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연령-범죄곡선은 <그림 1>로 나타냈는데 FBI의 공식적인 범죄통계인 UCR(Uniformity Crime Report)에 따른 자료를 이용했다. UCR 자료는 15세에서 24세까지는 나이별로 범죄통계가 공개되었고 25세에서 64세까지는 5년 단위로 범죄통계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25세 이상의 경우 나이와 해당되는 체포자수의 평균치를 사용했다. <그

림 1>에서 보여 주듯이 미국의 경우는 10대 후반에 가장 범죄자가 많고 그 이후는 서서히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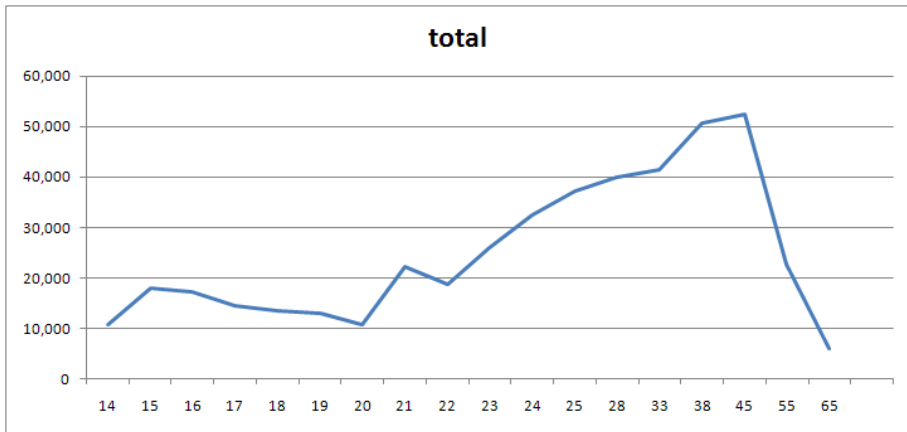
〈그림 1〉 2007년 미국의 연령별 범죄

미국의 2007년도 연령-범죄곡선과 비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연령-범죄곡선은 대검찰청 자료인 2008년도 범죄백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대검찰청 자료는 공식적인 범죄 통계이므로 실제 범죄자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른 더 적절한 자료를 찾지 못하여 범죄자의 연령 파악이 가능한 대검찰청 자료를 선택했다. 대검찰청 자료의 경우도 미국의 UCR처럼 25세 이하는 나이별로 범죄통계가 작성되었으나 그 이상은 5년 내지는 10년 나이 단위로 작성되었으므로 미국의 범죄분석과 마찬가지로 25세 이상은 나이의 평균과 해당되는 범죄자수의 평균을 구하여 연령-범죄곡선을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의 연령-범죄곡선은 <그림 2>에 나타났다.

<그림 2>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10대 범죄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0대 때부터 범죄가 점차 증가하여 40대에 범죄자가 가장 많은데 이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연령-범죄곡선이 대부분의 범죄학 이론에서 예측하듯이 10대 후반에서 범죄의 정점을 형성하지 않고 있어서 혹시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가 반영되거나 그 나라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범죄-연령 곡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두 나라의 연령별 범죄분석을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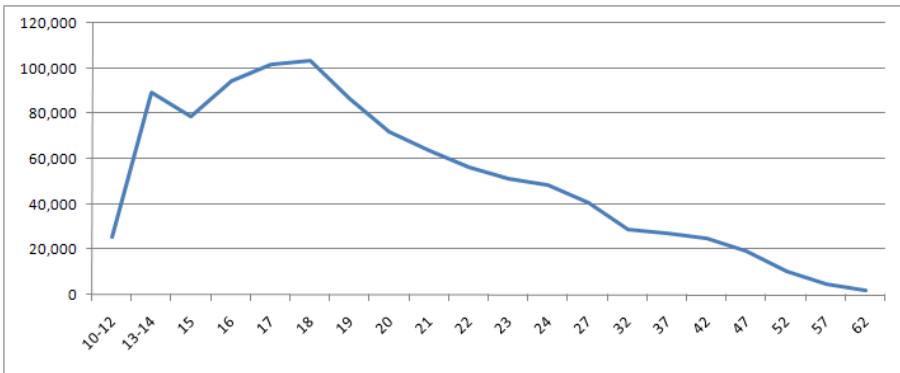


〈그림 2〉 2007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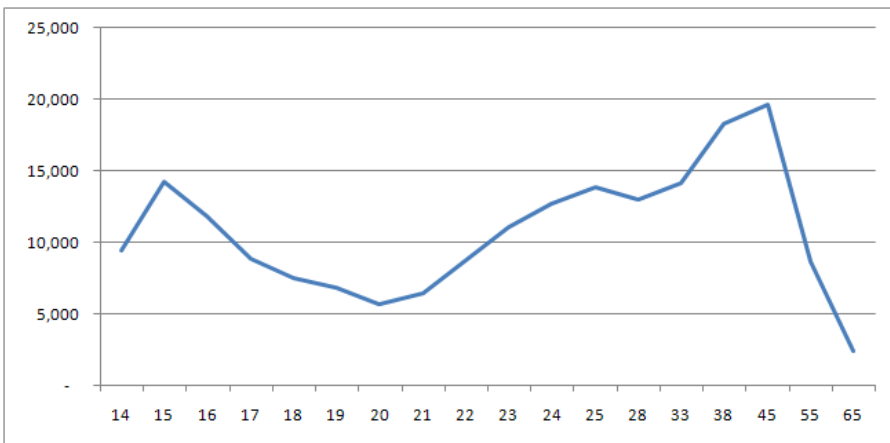
두 나라의 연령에 따른 범죄 분석시 두 나라에 공통적이고 좀 더 보편적인 범죄를 사용하여 두 나라의 연령별 범죄를 분석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UCR에 포함된 범죄 중에서 미국 18세 이하들이 많이 저지르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드문 범죄인 마약관련 범죄, 음주범죄, 귀가시간(curfew) 위반 등을 범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범죄통계의 경우에는 특별법범과 형법범이 있는데 특별법은 입법도 비교적 쉽게 되고 법률이 없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고(최인섭, 1993), 우리나라 상황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법들도 많고 청소년보다는 성인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많으므로 특별법범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했다. 형법범 중에는 미국의 범죄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간음이나 화이트 칼라 범죄가 포함되어었는데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범죄나 화이트 칼라 범죄도 제거하여 폭력범죄나 재산범죄 위주로 다시 두 나라의 범죄율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났다.

<그림 3>은 2007년도에 발생한 살인, 강제 성폭행, 강도, 폭행, 절도와 같은 미국의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의 합계를 나타낸다. <그림 1>과 <그림 3>을 비교해 보

있을 때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만을 고려한 <그림 3>은 범죄의 양적인 면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연령-범죄곡선 형태는 <그림 1>과 큰 차이 없이 여전히 18에서 19세에 가장 범죄자가 많음을 보여 준다.



〈그림 3〉 2007년 미국의 연령별 폭력과 재산범죄



〈그림 4〉 2007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폭력과 재산범죄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범 중에서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를 포함하는 재산범죄와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을 포함하는 흉악 강력범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등을 포함하는 폭력강력범죄를 합산하여 범죄통계를

구하였다. <그림 2>에서와 마찬가지로 25세까지는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나온 자료를 사용했고, 26세 이상의 경우는, 범죄백서에 나온 자료가 5년에서 10년 나이 단위로 나왔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각 나이의 평균값과, 나이에 해당하는 범죄의 평균값을 계산했다.

<그림 2>가 점진적으로 범죄자가 많아져서 40대에 정점을 보인 것과 달리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만으로 이루어진 <그림 4>에는 두 개의 정점이 나타난다. 15세쯤에 범죄자가 많아졌다가 점차 적어지고 40대에 가장 범죄자가 많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18-19세에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한 <그림 2>에서는 10대 때의 범죄자가 20대보다 적게 나타났으나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만을 고려한 <그림 4>에서는 15세의 범죄자가 20대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에서는 10대 범죄자가 40대의 1/4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림 4>에서는 15세 때의 범죄자가 40대의 2/3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범죄 분석시 어느 범죄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폭력과 재산범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그림 3>과 <그림 4>는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범죄를 제거했을 때도 미국과 한국은 다른 연령-범죄곡선 모양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10대의 범죄자가 많다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로서 우리나라의 10대의 범죄자 수가 20대보다 또는 50대, 60대 보다 많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40대에서 연령-범죄 곡선이 정점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외의 결과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 연령-범죄곡선이 하나의 정점을 보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두 개의 정점을 보이는 것 또한 특이한 점이다.

20세에서 22세까지 범죄자 수가 적은 것은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나이에 군대에 가고 군대에서의 통제가 범죄를 막아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최인섭·박순진, 1993; 박철현 2001) 40대까지 계속해서 범죄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연령-범죄곡선의 정점이 10대 후반에 형성된다(Hirschi & Gottfredson, 1983)는 것과는 다르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기대 외의 결과를 좀 더 관찰해 보기 위해 연

구범위를 폭넓게 잡아 1967년에서 2011년까지의 연령에 따른 범죄율 추이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연령 분포에 따른 일반적인 범죄율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IV. 1967년에서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 연령별 범죄율

앞장에서는 2007년도 우리나라의 연령-범죄곡선이 미국과 달리 보다 늦은 나이인 40대에 정점이 형성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박철현(2001)은 1985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연령에 따른 범죄의 정점은 30대에 형성되어 산업화된 다른 나라들의 연령-범죄곡선과는 다르다는 제안을 했다.

30대 또는 40대에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위의 결과가 항상 그래왔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장에서는 범법자수와 인구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967년부터 비교적 최근인 2010년까지의 범죄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는 앞서 언급했듯이 특별법은 법의 제정과 폐지가 잦고 비보편적인 법이 많으므로 특별법범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다 보편적인 범죄로 분류되는 형법범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앞서 미국과의 연령별 범죄 분석시 사용했던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재산범죄는 일반적으로 10대에 많고(Hirschi & Gottfredson, 1983), 폭력범죄 역시 혈기왕성한 시기에 많으므로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연구를 국한하는 것은 범죄 통계를 인위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이 포함되게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형법범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박승진 등(1997, p. 65), 최인섭(2003, p. 107)과 대검찰청 홈페이지 및 형사정책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범죄백서 자료, 그리고 통계청의 총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범죄율은 5년 단위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첫 번째는 1967년부터 2001년까지이고 두 번째는 2005년과 2010년까지이다. 먼저 1967년부터 2001년까지의 범죄율을 살펴보고 다음에 2005년과 2010년도 범죄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967년에서 2001년까지의 연령별 범죄율

1967년부터 2001년까지의 범죄율을 5년에서 10년 연령 단위로 분석했는데 먼저 인구자료로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5년마다 이루어진 인구총조사 결과를 5년 연령 단위로 나누어 탑재한 자료를 사용했고 형법범 자료로는 박승진 등(1997)과 최인섭(2003)이 제공한 자료를 사용했다. 인구에 대한 5년마다의 연령 정보가 0-4세, 5-10세, 11-14세, 15-19세... 등으로 구성된 반면 박승진 등(1997)과 최인섭(2003)에서 분석한 형법범 연령은 15세 이하, 16-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50세, 51-50세, 60세 이상 등으로 인구총조사의 정보보다 한 살씩 많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구 정보는 총조사가 이루어졌던 해의 것을 사용하고 형법범에 대한 정보는 그 다음해의 정보를 사용했다. 그리하여 1966년¹⁾의 인구에 1967년의 형법범수를 이용했고, 1970년 이후부터는 매 5년마다의 인구정보와 그 다음 해의 형법범 정보를 사용하여 범죄율을 계산했다. 1년 동안 사고사 등의 약간의 인구감소는 있겠으나 그 차이는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큼 크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1967년에서 2001년까지의 범죄율 계산은 박승진 등(1997)과 최인섭(2003)이 제공한 연령별 형법범의 구성비를 해당되는 연령대의 인구구성비로 나누었다. 즉,

$$\text{범죄율} = \text{연령별 형법범 구성비} \div \text{연령별 인구구성비}$$

로 계산했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1967년에서 2001년까지의 범죄율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범죄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10대 후반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범죄율이 가장 높은 시기를 굵은 글씨로 나타내었는데 1967년과 1971년에는 26세에서 30세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고, 1976, 1986, 1991년에는 31-35세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고 1981년, 1996년, 2001

1) 1995년은 인구총조사 정보가 없고 1966년에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부득이 1966년 인구정보와 1967년 형법범 정보를 사용했다. 1970년부터는 매 5년마다 기록된 인구총조사 정보를 사용했다.

년에는 36-40세에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인다. 1981년도²⁾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로 범죄의 정점이 천천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 후반과 30대의 범죄율이 높은 반면에 16세에서 20세까지의 범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을 <표 1>은 보여 준다.

〈표 1〉 1967년에서 2001년까지의 범죄율

	16-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50세	51-60세
1967	1.69	1.93	2.39	2.08	2.08	1.75	0.96
1971	1.77	1.94	2.55	2.12	1.85	1.58	0.9
1976	1.56	1.75	2.2	2.23	1.97	1.45	0.86
1981	1.45	1.49	2.04	1.99	2.09	1.47	0.78
1986	1.51	1.48	1.69	1.79	1.71	1.45	0.75
1991	1.16	1.37	1.76	1.79	1.69	1.44	0.74
1996	0.98	1.08	1.49	1.82	1.89	1.56	0.84
2001	1.02	1.09	1.34	1.6	1.84	1.71	0.96

자료출처: 박승진외(1997), 최인섭(2003), 통계청 홈페이지 인구총조사 자료

<표 1>의 자료는 1985년에서 2000년까지의 자료를 연령별로, 매년 분석한 박철현(2001)이 주장한 1985년에서 1989년까지는 30대 초반 범죄율이 가장 높고, 1990년에서 1994년까지는 34세쯤 범죄율이 가장 높으며, 1998년 이후는 30대 중반 이후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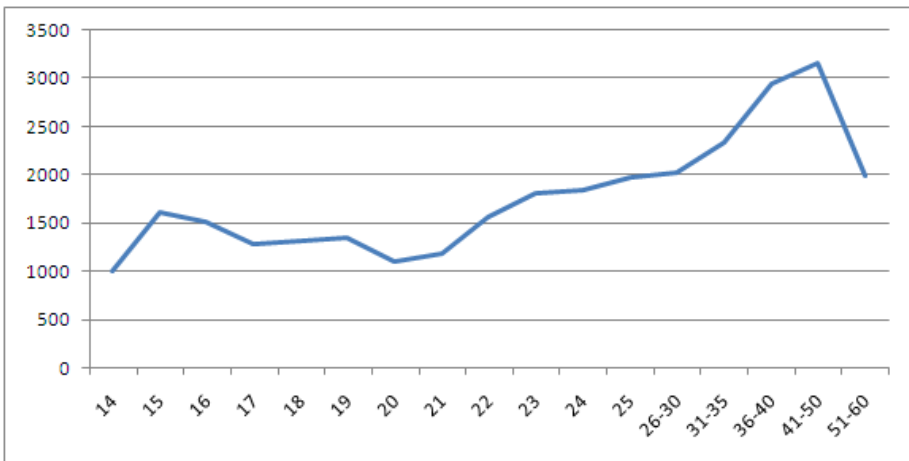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1967년부터 2001년까지의 범죄율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2005년과 2010년도 범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2) 1981년에는 주변연도와 달리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6-40세이고 다음은 26-30세, 그리고 31-35세는 세 번째로 나타났는데 이는 1980년부터 시행되었던 삼청교육대의 영향은 아니었는가 하고 의문을 가져 본다.

2. 2005년과 2010년의 연령별 범죄율

1967년부터 2001년까지는 범죄자의 연령분포비율을 해당연령대의 인구구성비로 나누어 범죄율을 구하였으나 2005년과 2010년의 범죄율은 비교적 최근 정보로 자료도 구하기 쉽고, 보다 세밀하게 최근 동향을 알아볼 필요도 있고 하여 범죄백서 자료와 통계청 인구자료를 기준으로 10만명당 형법범 수를 범죄백서에서 분류한 연령대인 14세에서 25세까지는 연령별로, 26세에서 40세까지는 5세 단위로 40대와 50대는 10세 단위로 나누어 범죄율을 살펴보았다.

2005년과 2010년의 연령별 범죄율은 각각 <그림 5>와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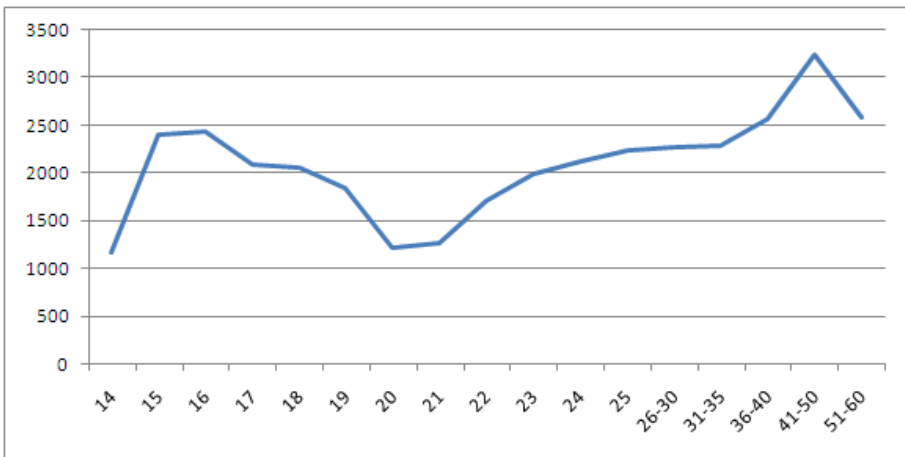


〈그림 5〉 2005년 연령에 따른 형법범

2005년의 연령별 범죄 곡선인 <그림 5>를 보면 2001년보다 범죄의 정점이 더 뒤로 물러나 40대에 정점을 이루고 있고 다음에 30대 후반, 30대 초반 순서로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철현(2001)은 1998년 이후 30대 후반에서 범죄율의 정점이 이루어진 것이 IMF의 영향이라고 하였는데 2005년 범죄율은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범죄율의 정점이 다시 30대 중반으로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40대로 움직이고 있어 IMF로 인한 범죄율 정점 이동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 준다. <표 1>과 <그림 5>를 보면 범죄율의 정점 연령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그러면 2010년도의 범죄율은 어떨까? 2010년도 범죄율에 그것이 반영될까?

2010년 연령별 범죄율은 <그림 6>로 나타냈다. 2010년도 연령에 따른 범죄율을 보면 <그림 4>에 나타난 2007년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한 연령-범죄 곡선과 유사하게 10대에서 작은 봉우리가 나타나고 40대에서 큰 봉우리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2010년도의 범죄율은 2005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범죄율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시기는 40대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2005년과 달리 두 번째로 범죄율이 높은 시기는 50대로서 2005년도에 나타난 30대보다 범죄자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2010년도의 50대 범죄율은 <표 1>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6>은 우리나라 범죄율에서 10대 중반의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도 보여 준다.



<그림 6> 2010년 연령에 따른 형법범

<표 1>과 <그림 5> 그리고 <그림 6>을 보면 공통적으로 20대 초반에 낮은 범죄율을 보이는데 이는 박철현(2001)에서도 언급한 군대 생활로 인한 효과가 1967년부터 2010년까지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보인다.

3. 1967년에서 2010년까지의 연령별 범죄율

지금까지 살펴본 1967년에서 2010년까지의 자료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시기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연도별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숫자 1로 표시했고 두 번째 높은 연령대는 숫자 2, 세 번째로 범죄율이 높은 연령대는 숫자 3으로 표시했다.

<표 2>연도별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

	16-20	21-25	26-30	31-35	36-40	41-50	51-60
1967			1				
1971			1				
1976				1			
1981			2	3	1		
1986				1			
1991				1			
1996					1		
2001					1		
2005					2	1	
2010						1	2

<표 2>는 1967년과 1971년에는 26세에서 30세 연령대가 범죄율이 가장 높았고 이후 점차 늦은 나이로 이동하더니 2005년과 2010년에는 40대에 범죄율이 가장 높음을 보여 준다. 특히 1981년의 연령별 범죄율은 36세에서 40세 연령대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고 그 연령대와 인접하지 않은 26세에서 30대가 두 번째로 높고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36세에서 40세와 인접한 31세에서 35세까지의 범죄율이 세 번째로 높아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2005년과 2010년에는 둘 다 40대 범죄율이 가장 높았으나 두 번째로 범죄율이 높은 시기는 2005년에는 36세에서 40세 연령대, 2010년에는 50대 연령대를 보임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에 따른 범죄율의 정점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범죄가 가장 많은 시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이가 많은 쪽으로 움직이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령-범죄곡선의 정점이 더 나이 많은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같은 코호트(cohort)가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1991년부터 2010년까지는 베이비붐 세대의 나이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각 연도별로 범죄자가 많은 나이와 베이비붐 세대의 나이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베이비붐 세대를 1955년부터 1963년까지에 걸쳐 태어난 세대로(송양민, 2010, p.25) 보고 연도별로 범죄자가 가장 많은 나이대와 해당되는 년도의 베이비붐 세대의 나이를 <표 3>으로 나타내었다.

<표 3>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와 연도별 베이비부머 나이

	16-20	21-25	26-30	31-35	36-40	41-50	51-60
1967			1				
1971			1				
1976	(13-21)			1			
1981		(18-26)	2	3	1		
1986			(23-31)	1			
1991				1(28-36)			
1996					1(33-41)		
2001					1(38-46)		
2005					2	1(43-51)	
2010						1(48-56)	2

<표 3>을 보면 1986년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은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와 맞닿아 있고 그 이후인 1991년부터 2010년까지는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05년도에 40대에 연령-범죄 곡선의 정점을 형성했던 베이비 붐 세대는 2010년도에 48세에서 56세로 이미 50대로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40대의 범죄가 가장 많다. 만일 베이비붐 세대의 범죄가 가장 많다는 가정이 맞아 떨어지고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시간이 더 지나면 앞으로는 50대에 가장 높은 범죄를 저지를 가

능성도 예측된다. 그러나 Hare(1999)에 의하면 50대 이후는 사이코패스조차도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하고 50대 이후는 생물학적으로도 힘이 약해져서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하니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50대의 범죄가 가장 많을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1967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 연령별 범죄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Hirschi & Gottfredson(1983, 1985)이 주장한 연령에 따라 범죄의 정점시기가 정해졌다는 주장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10대의 범죄율이 성년의 범죄율에 비해 낮고 10대의 경우에도 미국은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높으나 우리나라는 10대 중반이 10대 후반부터 범죄율이 높다는 자료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범죄율의 정점은 1967년과 1971년에는 26-30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나 그 후로 조금씩 더 높아져서 2010년에는 40대 범죄율이 높고 그 후는 50대 범죄율이 뒤를 따르고 있어 범죄율의 정점을 보이는 연령대가 점점 늦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연령별 범죄율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일반적인 범죄학 이론에서 제시되는 10대 후반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주장이 우리나라 범죄율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율의 정점을 이루는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죄율의 정점이 30대나 40대에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V. 논의

앞장에서는 우리나라 1967년에서 2010년까지의 범죄율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산업국가에 비해 범죄율이 높은 연령대가 늦은 나이에 형성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범죄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적어도 공식적인 통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연령별 범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Hirschi & Gottfredson(1993, 1985)의 주장보다는 Greenberg(1977, 1985)의 주장

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Hirschi & Gottfredson(1993, 1985)은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범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10대 후반이라고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1967년에는 20대 후반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

Hirschi & Gottfredson(1993, 1985)과는 달리 Greenberg(1977, 1985)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범죄율이 높은 연령대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특성이 이러한 연령-범죄곡선 모양을 나타내게 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하여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필자의 초보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 10대 범죄율보다 30대나 40대 범죄율이 높은 것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기대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고등학생이 되면 차를 몰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 차 연료비가 필요하고 마약을 하는 학생들은 그에 따른 돈도 필요하다. 오후 2시면 학교가 끝나서 유흥비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용돈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 10대 후반이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당연히 부모가 자녀의 용돈을 준다.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에 대해 가장 압력을 느끼는 세대는 10대가 아닌 가장의 나이이다. 특히 1991년부터 베이비붐 세대를 따라서 범죄율이 높아진 것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보인다.

Greenberg(1977, 1985)는 산업사회의 10대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돈을 쓸 데는 많은데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에 따른 긴장(strain)으로 범죄율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가장 힘든 세대는 10대가 아닌 베이비붐 세대인 것 같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많이 지적되어져 왔다.

베이비붐 세대의 급격한 인구구성 비율의 증가는 이들을 다른 코호트에 비해 직장이나 교육 등의 사회적 경쟁에 더 심각하게 직면하게 했고 이러한 요인이 범죄 발생을 야기시키는 사회적 요인이 되었음을 최인섭·박순진(1993, p. 80)은 추론했다.

어렵게 직장을 구해서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던 베이비붐 세대는 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위기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 박철현은 1998년 우리나라의 연령-범죄곡선의 정점이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으로 이동한 것은 IMF 때문이라고 했는데 IMF가 터지면서 직접 구조조정의 타겟이 된 베이비부머들은 평생 직장이라고 여겼던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함으로써 더욱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는데 Merton(1938)과 Agnew(2006)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범죄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임을 지적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겪는 스트레스는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50대 남성 사망률이 50대 여성사망률보다 3배가 높다는 통계에서도(송양민, 2010) 나타난다.

베이비부머들은 경제개발세대(1950-1955년생)에 비해 더 많은 경쟁을 위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 가운데서도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진 세대이다. 과거에는 다 같이 고만고만하게 살던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인하여 노동보다는 투자에 의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상대적 빈곤감등을 더 느끼게 되었는데 이는 성실하게 노동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오고 과거의 친구들은 부자가 되었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늘 절망은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를 더욱 크게 벌려 놓음으로써 베이비부머들의 범죄율을 더 높였을 것으로 추산되어진다. 이러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 또한 범죄의 원인임을 Merton(1938)은 주장한다.

Hirschi(2006)와 Sampson & Laub(1993)는 약화된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화될 때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고 했는데 한국의 핵가족화와 도시화가 가장 급속히 이루어진 시기 또한 베이비붐 세대였다.

최인섭·박순진(1993)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직장이나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데 베이비붐세대는 청년층으로의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노동력이 증가하였는데도 사회구조가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여 9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범죄율이 높았음을 설명한다(p. 20). 이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범죄율은 베이비붐 세대가 살아왔던 힘든 시간들을 대변하는 것

같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령별 범죄율이 30대나 40대에 높게 나타나는 것은 10대 자녀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과 가장들이 느끼는 가정 경제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범죄율이 높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인구구성비 자체로 인한 한정된 기회에 대한 치열한 경쟁, 경제개발 과정과 도시화 과정으로 이어진 전통적 가치관의 파괴와 비공식적 사회통제 및 사회유대의 약화 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은 본 논문의 결론 부분이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1967년에서 2010년까지의 대검찰청 범죄 통계와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연령별 범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Hirschi & Gottfredson(1983, 1985)의 주장처럼 10대 후반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1970년대 20대 후반에서 최근에는 40대로 연령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1991년 이후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같이 하고 있음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범죄율의 연령대가 다른 산업국가와 달리 늦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제적 책임을 부모가 특히 가장이 떠맡기 때문에 부모세대의 경제적 압박이 커서 그 연령대의 범죄율이 높을 수 있음을 Greenberg(1977, 1985)에 기초하여 조심스럽게 제한한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범죄율은 베이비붐 세대가 겪었던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성장, 그 이면에 있는 빈부격차와 IMF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혼란,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적 유대의 약화, 경쟁에 의한 스트레스와도 연관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베이비붐 세대가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Cohen & Land, 1987). 10대 후반에 높

은 범죄율을 보이다가 나이가 들면서 성장효과(‘maturation reform’ 또는 ‘aging out’: Hirschi & Gottfredson, 1983, p. 564)에 의해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나이가 들면서 범죄율이 줄어들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또한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는 왜 성숙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최근 노년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신연희, 2010),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이 된다면 우리나라 노년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이들에 대한 노인범죄 대책은 거의 전무(신연희, 2010)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본격화되고 있으나 그들은 자식 키우느라 돈은 다 써버리고 노후 준비가 불안하다(송양민, 2010). 그들의 경제적 압박은 범죄와도 연관되어질 수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Greenberg, 1977, 1985).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대책에 대한 논의가 사회복지적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범죄 통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이들에 대한 대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가 범인이 잡힌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실제 범죄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는 제약이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20대부터 범죄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30대나 40대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정도의 설명을 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대검찰청, 범죄백서, 2006

_____. 범죄백서, 2008

_____. 범죄백서, 2011

김진현/이천현/홍명오/박형민/김한균/권수진. 한국의 범죄동향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7-01, 2007

박승진/이동원/박순진,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964-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7-21, 1997

박철현, “한국의 연령-범죄곡선”, 한국인구학 24:149-177, 2001

송양민, 밥, 돈, 자유: 대한민국을 재창조한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1세기 북스, 2010

신연희,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 본 노인범죄 전망: 가족의 지지자원을 중심으로”, 교정담론 4(2):115-148, 2010

이상철/기광도, 범죄발생의 추세분석: 1964-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최인섭, 형법범죄 발생을 추세(1964-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최인섭/박순진, 사회구조와 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외국문헌]

Agnew, R., “Pressured into crime: General strain theory”, Pp. 201-209 in F. T. Cullen & R. Agnew (ed.)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 3rd edition. CA:Roxbury, 2006

Cohen, L. E. & Felson, M.,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588-608, 1979

Cohen, L. E. & Land, K. C., “Age structure and crime: Symmetry versus asymmetry and the projection of crime rates through the 1990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2:170-183, 1987

- Greenberg, D. F., "Delinquency and the age structure of society", *Contemporary Crises* 1:189-223, 1977
- _____, "Age, crime and social explan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1-21, 1985
- Hare, R., *Without Conscience: The Disturbing World of Psychopaths among Us*. NewYork:Pocket Books, 1999
- Hirschi, T., "Social bond theory", Pp. 219-227 in F. T. Cullen & R. Agnew (ed.)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 3rdedition. CA:Roxbury, 2006
- Hirschi, T. & Gottfredson, M., "Age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552-584, 1983
- _____, "Age and crime, logic and scholarship: comment on Greenber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1:22-27, 1985
- Merton, R. K.,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72-682, 1938
- Rosenfeld, R & Messner S. F., "Crime and the american dream", Pp. 191-200 in F. T. Cullen & R. Agnew (ed.)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 3rdedition. CA:Roxbury, 2006
- Sampson, R. J. & Laub J. H., "An age-graded theory of informal social control", Pp. 241-253 in F. T. Cullen & R. Agnew (ed.)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 3rdedition. CA:Roxbury, 2006
- _____, "Crime and deviance in the life course", *Annual Reviews in Sociology*, 18:63-84, 1992
- Shaw, C. R. & McKay, H. D.,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Pp. 95-101 in F. T. Cullen & R. Agnew (ed.)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 3rdedition. CA:Roxbury, 2006
- Zhong, H., *The age-crime relationship across time and offense types: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2005

[기타]

FBI UCR 자료(http://www.fbi.gov/ucr/cius2007/data/table_38.html)

통계청 홈페이지 자료(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A Study on Korean Crime Rates according to Ages

Jeong, Eunkyeong*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crime peak ages in industrial countries are in their late teens. But in this paper, it is investigated that the crime peak age of Korea is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industrial countries. Using the official crime data from 1967 to 2010, this paper shows that the crime peak age in Korea is in 30s or 40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crime peak ages go together with the generation of baby boomers recently.

This paper tries to explain the reasons why crime peaks in 30s or 40s. Borrowing Greenberg's theories (1977, 1985),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n culture prevent teens from committing more crimes than 30s or 40s. Also, the reason why baby boomers commit more crimes than other cohorts are explained using various criminology theories such as bonding theory and anomie/strain theory.

To reduce crimes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that criminal policies for older ages are necessary and they must consider baby boomers' economic difficulties. The limitations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are also presented.

❖ Key words : age-crime curve, crime rates, baby boomers, social bonding theory, anomie theory, strain theory

투고일 : 9월 1일 / 심사(수정)일 : 9월 14일 / 게재확정일 : 9월 14일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Youngsan University